"거리두기 가능한 농촌부터 먼저 개학하는 것도 방법"

정부, 고3 · 중3부터 순차적 등교 방안 검토 밝혀

"싱가포르 · 덴마크 참고 새로운 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고3 · 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싱가포르, 덴마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등교 개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늦어도 5월 초에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을 안내하고 고3 · 중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학습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싱가포르 개학 강행 후 학교 폐쇄…덴마크는 등교 개학 진행中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모범적인 대응으로 박수를 받았지만, 등교 개학 강행 이틀 후 한 유치원에서 약 20명이 집단감염됐다. 싱가포르는 3월23일 개학을 강행했으나 결국 지난 3일 재택수업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외국 사례를 의식한 듯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등교개학은 훨씬 보수적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개학을 결정한 나라도 있다.

덴마크는 최근 하루 평균 100명을 웃도는 신규 확진자 발생에도 초등학교와 유치원 개학을 결정했다. 현재 덴마크 정부는 책상을 2m씩 떨어져 배치해 거리를 유지하고 가급적 야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덴마크에 이어 네덜란드는 5월11일부터 초등학교를 개학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5월12일부터 초등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5월25일까지 전 학년의 등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등교 개학을 결정한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사례나 과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에서의 확진자 폭증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따라서 정부가 학습권과 생명권을 모두 수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학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 "온라인 강의 병행, 농촌부터 개학도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면역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을 앓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부모 재량껏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밀집도가 낮은 농촌부터 등교 개학을 시작해서 대도시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는 농촌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개학을 시작해서 점차 경험을 쌓아 대도시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번 계기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고안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등교후 확진되면 '코로나 왕따' 될까 겁나" 근심 많은 高3

입시준비 급한 고3… "생기부 챙겨야 해 등교개학 더 필요"

2020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간격을 두고 떨어져 서서 문제지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

중 · 고등학교 3학년부터 내달 등교개학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3 학생들은 등교를 반겼지만 혹시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가능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중 ·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8일 소식을 전해들은 고3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서는 등교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고교 3학년생 서모양(18)은 "고3은 입시와 직결돼 (등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등교를 반기지만 싱가포르처럼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교개학에 앞서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가진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방역 · 위생물품 비축, 감염병 예방 사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모의훈련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고3 학생들은 불안함을 떨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양은 "모의훈련을 통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급식실 등에서 접촉자가 돼 있을 거다"면서 "주변 친구들도 등교개학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3 학생들이 등교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학사일정이 밀리면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졌기 때문이다.

충남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 중이라는 고3 김모양(18)은 "학사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5달 정도 대입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서 "5월 초에 등교개학을 한다고 해도 (준비기간이) 3달 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김양은 등교개학이 계속 연기되면 3학년이 되기까지 2년 동안 노력해 준비한 학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교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염이 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인 김태희양(15 · 서울 서초구)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괜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특히 중 · 고등학생들은 학업에 예민한 시기여서 건강뿐만 아니라 성적도 자연스럽게 걱정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내에서 학생들이 방역수칙과 학교 통제를 문제없이 따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전 서구에서 사는 중3 이지인양(15)는 "접촉제한 같은 경우 실제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잘 지켜질 것 같지 않다"면서 "(교육당국에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학생 간 접촉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